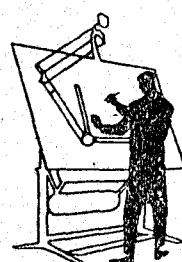


他業種보다 높은效果보여

식품공업의 해마다 놀라운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성장추세에 따라 그 어느 업종에 못지 않는 고용증대효과를 나타내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 지난 1년 말 현재 식품공업분야에 취업하고 있는 고용인원은 약 1백 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金潤煥

(前高麗大教授)

雇傭增大

年 27.3% 成長

우리나라는 工業化以前의 社會였는 李朝末以後 오랜 過渡期를 거쳐 60年代에 비로 소工業化 社會에 드러서게 되었다. 50年代末부터 마련되어오던 工業化計劃은 60年代에 드디어 實踐으로 옮겨져 韓國經濟의 轉換期를 이룬 것이다. 60年代의 高度成長은 重化學工業을 중심으로 輸入代替產業의 關發과 輕工業을 기반으로 한 輸出의 현저한 증가 그리고 社會間接資本의 대폭확충에 기인하는 것이다. 1962~70年間의 年平均 經濟成長率이 9.9%로서 1958~61年間의 5%보다 훨씬 높다. 이사이에 鎳工業 및 社會間接資本部門의 成長率은 각각 16.8%~19%이며 1次 5個年計劃(1962~66)期間에는 각각 14.8% 16.8%이고 2次 5個年計劃期(1967~1970)에는 각각 21.8%~22%가 되어 높아지고 있다. 같은 기간중의 工業部門別成長趨勢에 있어서는 重化學工業의 開發를 중심으로 한 輸入代替產業의 발전에 따라 특히 化學部門이 32.8% 烹業 25.3% 機械 23.9% 金屬 20%등 비교적 높은 成長率을 보이고 있다. 輕工業部門中에서는 纖維產業이 22.4%로 성장률이 높다. 食品工業部門의 年平均 成長率은 1962~70年間에 18.4%로서 1967~70年間의 23%와 비교해 보면 2次 5個年計劃期이 후부터 成長產業으로서 등장하고 있다. 상세히 살펴보면 食品工業의 年平均成長率은 1957~61年間에 7% 1962~66年間에 7.4% 1967년에 22.7% 1968년에 27.3% 1970년에 17.1%이다. 그러나 食品工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農業部門은 1962~70年間의 年平均成長率이 3.8%로서 매우 낮으나 1次 5個年計劃期에는 5.5% 2次 5個年計劃期에는 1.7%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나라의 食品工業은 원래가 美國援助의 原資材를 중심으로 50年代부터 발달해온 產業이지만 農業不振은 食品工業의 原資材面에서 的 對外依存度를 높이고 있다.

특히 食品工業은 製造原價中 材料費比率이 높은 產業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飲料品을 포함한 數字이지만 飲食料品의 製造原價中 材料費의 比率은 1968年에 82.9 1969年에 82.5나 되었다.

최근의 世界的인 資源波動과 美國의 農產物禁輸措置는 食品工業의 原資材價格 上昇과 品貴現象을 부채질하여 成長趨勢에 있는 食品工業成長의 制約要因으로 작용할 것이다. 食品資源開發投資增大, 對美交涉의 強化와 輸入市場의 多邊化, 多角的인 政府支援等의 對策이 필요하다. 50年代를 대표하는 產業이 紡織工業과 食品工業이라면 60年代를 대표하는 產業은 化學肥料를 중심으로 하는 重化學工業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鑛工業成長에 대한 食品工業의 寄與度는 높다. 따라서 食品工業의 成長템포가 經濟成長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예컨대 1971年の 鑛工業成長에 대한 製造業의 寄與率은 99.47이고 鑛業은 0.53이다. 鑛工業成長에 대한 食品工業의 寄與率은 11.6으로서 두번째로 높다. 제일 높은것은 섬유로서 32.2가 된다. 이상과 같은 高度成長의 要因은 外資依存의 施設投資擴大 輸出의 好調 下部構造의 改善 技術導入에도 있지만 豐富하고 良質의 低賃金 労動力의 存在도 잊어서는 않될 것이다.

年 80萬名이상 就業

60年代의 급격한 經濟規模擴大와 經濟構造高度化에 따라 労動力의 需要是 質과 量面에서 중대되었다. 이에 따라 農業部門을 중심으

로 광범하게 存在되던 不完全就業群, 經濟成長의 制約要因에서 促進要因으로 바뀌게 되었다. 過剩勞動力은 화대된 施設投資나 導入技術과 결합되어 生產性을 向上시켰으나 生產性向上에 미달되는 低賃金水準으로 해서 勞動集約產業에서 國際的 優位性을 지녀 輸出增大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60年代의 就業者動向을 살펴보면 1963~70年間に 全產業就業者數가 年平均 2.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失業率은 8.5%에서 4.5%로 감소되었다. 이와 더불어 不完全就業群도 감소되는 추세에 있으며 農業勞動의 非農業部門에로의 移動現況도 엿보인다.

同期間에 農業部門의 就業比率은 60.7%에서 49.6%로 감소되고 있으나 다음편으로 아직도 不完全就業群이 잔존하고 있다. 週當 35時間以下의 就業成長率은 1963年に 26.9%이던 것이 1970年に 19.3으로 감소했으나 아직 그 比率이 높다. 이와 같은 不完全就業群의 殘存은 低賃金水準과 劣惡한 労動條件 前近代의 劋使關係를 존속시키고 있다.

鑛工業의 就業狀態를 살펴보면 附加價值面에서는 重化學工業의 比重이 점차 높아가고 있으나 從業員構成比面에서는 輕工業部門이 증가추세에 있다. 1966年에는 輕工業의 從業員構成比가 54.7% 重工業의 從業員構成比가 45.3%이던 것이 1970年에는 각각 56.2%, 43.8%가 되었다.

輕工業部門에 속하는 食品工業의 雇傭推移를 살펴보면 다음 表와 같이 1960年的 從業員數 約 28萬名이 1971年에는 約 3倍인 72萬5千名으로 증가되었다. 그리고 食品工業 從業員數는 製造業全體從業員數의 約 8~9%가 되어 그 비중이 높다. 食品工業部門의 雇傭增加가 鑛工業部門의 雇傭增大에 미친 寄與度를 살펴

食 品 工 業 の 雇 傭 推 移

單位：人

年度 區分	1960		1963		1966		1969		1971		增加率 1960 ~1966 1966 ~1971
	從業員數	構成比									
製造業統計	275,254	100.0	393,359	100.0	557,026	100.0	829,044	100.0	848,194	100.0	102.4
食 料 品	27,959	10.1	35,814	9.1	52,377	9.4	63,887	7.7	72,578	8.5	87.3

資料：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礦工業センサス 報告書 및 矿工業統計調査報告書에서 作成

飲食料・ 담배 業種의 鑛工業에 대한 雇傭增大 寄與率

年度 區分	1966—1968		1968—1970		1966—1970	
	雇傭增加(人)	寄與率(%)	雇傭增加(人)	寄與率(%)	雇傭增加(人)	寄與率(%)
礦工業計	194,274	100.0	112,197	100.0	306,471	100.0
飲食料・ 담배	13,341	6.9	19,295	17.2	32,636	10.6

資料：韓國生產性本部，韓國의 矿工業 1972

보면 食料品 담배를 포함한 수자이지만 다음과 같다.

이상과 같이 1966~1970간의 飲食料・ 담배業種의 鑛工業에 대한 雇傭增大寄與率은 10% 이상이 되어 그 비중이 높음을 알수 있다.

食品工業의 規模別雇傭構造를 보면 다른 製造業部門과 마찬가지로 小規模企業의 比重이 낮아지고 大規模企業의 比重이 높아가는 추세에 있으나 아직도 9人未滿의 小規模企業의 比重이 압도적으로 높고 아울러 500人以

上의 大規模企業의 比重이 압도적으로 높아 大規模와 零細企業의 雇傭增大效果가 큼을 알 수 있다.

60年代 高度成長의 原動力이 되고 있는 技術導入狀況을 보면 重化學工業이 큰 비중을 찾이하고 食品工業의 비중은 보잘 것 없는 것이다. 1970年末까지의 技術導入件數는 208件 인데 이中 重化學工業이 80%인 165件을 찾이하고 食品工業은 2.4%인 51件을 찾이한다. 工業화의 進展에 따라 이러한 技術導入과 아울러 技術工, 技能工等 技術系人力資源의 需要가 증대되어 人力不足現象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에 대한 對策으로서 社內에서 公共職業訓練을 비롯한 人力開發이 시급하다. 食品工業部門의 人力需要展望을 보면 1970年の 28,300人에 대해 1976年에는 46%가 증가한 41,300人이 소요될 전망이다. 따라서 所要人力의 社內訓練養成과 아울로 誘致가 필요하며 同一業種間의 스카우트戰이 없도록 해야 할것이다. 그리고 응분의 勞動條件을 갖추어 줌으로서 所要人力

71年度 食品工業의 規模別 雇傭構造

	事業體數	從業員數	給與額	
			(人)	(千원)
5~9人	2,127	12,688	1,049,306	
10~19	696	9,035	989,802	
20~49	334	9,725	1,327,372	
50~99	95	6,527	1,118,285	
100~189	50	6,917	1,788,758	
200~499	32	9,806	2,053,316	
500以上	14	17,880	4,117,851	

資料：經濟企劃院、礦工業統計調査報告書 1971.

食品工業部門의 科學技術系人力需要展望

單位：人

年度 區分	1970	1972	1973	1974	1975	1976
製造業	344.000	451.400	512.300	574.100	641.600	715.000
食料品	28.300	33.100	35.400	37.400	39.400	41.300

資料：科學技術處，第3次 人力開發 5個年計劃(1972—76)

勞動生產性 貢獻

일반적으로 勞動力過剩狀態에 있는 開發途上國家의 開發初期에는 經濟成長이 雇傭增大에 의존하는 바 크다. 성장이 고도화 될수록 生產性向上에 의존하는 바 크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經濟成長에 대한 勞動生產性의 寄與度가 1963~66年間에 平均 68.1%이던 것이 1967~70年間에는 77.6%로 높아지고 있다. 1962~70年間의 勞動生產性指數가 185.6%로 증가하고 있으며 年平均增加率은 1962~66年이 7.8% 1967~70年이 18.1%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施設投資增大 技術導入增大 勞動力의 質的向上 生產構造의 高度化등에 기인하는 것이다. 食品工業의 勞動生產性推移를 보면 全產業이나 製造業에 대비하여 生產性向上이 뒤따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1965年을 100으로 할 때 1971에 生產性이 65%증가가 된다. 年平均 增加率은 1962~66年에 2.5%이고 1966~1971年間에 14.5%이다.

勞動生產性向上面에서 食品工業이 全產業이

나 製造業에 비하여 뒤따라지고 있는 것은 食品工業이 資本, 技術集約產業이기보다 勞動集約產業이라는 것과 아직도 小規模經營이 많다는데서 오는 것일 것이다.

이상과 같이 60年代의 工業化政策을 통하여 勞動生產性이 크게 向上되었으나 先進國에 비하면 아직 매우 낮은 형편이다. 低生產水準은 대외적으로는 國際競爭力を 약화시키고 대내적으로는 經營不實의 要因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政府의 支援과 低賃金에 기대여 生產性이 높은 나라들과 경쟁이 가능했던 것이다. 따라서 70年代에는 政府支援과 低賃金에의 依存性을 벗어나면서 企業經營의 強化, 技術革新, 人力開發, 勞便協調로 生產性 向上의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韓國經濟의 進路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60年代를 통하여 勞動生產性이 높아가고 物價가 上昇하여 生計費가 上昇했으나 賃金水準은 이를 따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賃金과 基他 經濟指數間의 거리가 다음표와 같이 좁아져 가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와 같은 兩經濟指

食品工業의 勞動生產性推移 (1965=100)

年 度 業種	1962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1/ 1970	年平均 增加率	
									1962~66	1966~71
全產業	75.1	104.1	122.4	144.1	177.8	201.2	216.4	7.6	8.5	15.8
製造業	73.4	104.0	122.4	146.8	185.5	209.2	224.5	7.3	9.1	16.6
食料品	78.0	85.9	99.3	121.8	130.6	154.0	165.0	7.1	2.5	14.5

資料：韓國生產性本部，韓國의 工業，1972에서 作成

製造業의 勞動生產性 및 實質賃金指數推移

1965=100

	生産指數	勞動生產性指數	實質賃金指數	勞動分配率(%)
1960	57.5	63.9	103.7	37.2
1962	70.1	73.4	107.1	36.6
1966	124.4	104.0	105.8	32.5
1967	161.8	122.4	116.9	37.9
1968	2.79	146.8	133.6	38.8
1969	265.3	185.5	138.5	39.1
1970	309.6	209.2	145.4	
年平均 增加率	62-66 67-70 62-70	15.8 25.8 20.3	7.8 18.1 12.4	0.1 9.1 4.0

資料：韓國主要銀行，韓國의 產業，1971

標間의 乖離現象이 급속히 해소되지 않는理由는 60年代의 工業化를 통하여 과잉勞動이 상당히 흡수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不完全就業者群이 만성적으로 존재하여 實質賃金의 上昇을 가로 막고 있다.

食品工業의 賃金水準의 動向도 製造業全般의 趨勢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食品工業의 賃金水準은 다음표와 같이 鐵工業平均이나 製造業平均보다는 낮은 13,770원(1971)이나 纖維工業의 11,950원 보다는 높다.

食品工業部門의 賃金水準의 年平均增加率은 1962~66年이 22.9% 1966~1971年이 23.3%로서 鐵工業平均이나 製造業平均보다 높은것은 1962年以前의 賃金水準이 他業種에 비하여

극히 低賃金水準이 였다는 것 그리고 零細規模의 經營이 지배적이었다는 것에서 찾아볼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食品工業의 賃金水準과 他業種 사이에 隔差가 있음을 알수있고 食品工業內部에서도 經營規模에 따라 賃金隔差가 他企業과 마찬가지로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賃金水準은 主要 各國과 비교해 보면 아직도 상당히 낮은 형편이다.

弗貨價値額基準으로 1962~70年間의 製造業時間當賃金은 勞動力不足現象이 나타나고 있는 日本과 西獨에서 각각 194.1% 117.8%의 上昇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91.3%이다. 1970年 現在의 우리나라의 賃金水準은 西獨의 7분의 1 日本의 약 5분의 1에 불과하며 대만

食 品 工 業 의 賃 金 水 準 (單位: 1,000원)

業種	年 度								年平均增効率	
		1962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62-66	1966-71
鐵工業平均		2.96	5.73	7.00	8.80	10.28	12.52	14.76	18.0	20.8
製造業平均		2.78	5.42	6.64	8.40	9.79	12.17	14.42	18.2	21.6
食 料 品		2.12	4.83	6.12	6.82	9.20	11.87	13.77	22.9	23.3

資料：韓國生產性本部，韓國의 工業，1972에서 作成

製造業 時間當 賃金 水準比較

單位：달라

	1962		1967		1969		1970		상승률 70/62
	금액	지수	금액	지수	금액	지수	금액	지수	
한국	0.615	100.0	0.123	100.0	0.19	100.0	0.22	100.0	91.3
미국	2.32	2,017.4	2.83	2,300.8	3.19	1,678.9	3.36	1,527.3	44.8
서독	0.73	634.5	1.05	935.0	1.43	752.6	1.59	722.7	117.8
일본	0.34	295.7	0.63	512.2	0.86	542.6	1.00	13.13	194.4
태란	0.12	104.3	0.16	130.1	0.21	110.5	18.0 (69.62)

資料：韓國產業銀行，韓國產業，1971。

보다도 낮다.

低賃金構造서 탈피

우리나라와 같이 勞動力의 質이 높으면서도 低廉하고 풍부하게 존재하는 나라에서는 이러한 労動力의 効果의인 活用으로 급속한 工業化를 이루할 수 있다. 그러나 60年代에 工業化의 기반을 구축하고 70年代에 工業化를 完成하여，80年代에 高位中進國이 되려는 마당에서 점차 低賃金水準에 의한 經濟開發이나 輸出増大에는 限界가 있음을 알수 있다.

① 앞으로 계속 高度成長에 따라 勞動力에 대한 需要가 증대하게 되면 低賃金構造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따라서 低賃金依存의 經濟開發이나 輸出增대 나아가서는 企業經營은 벽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② 보다 高度의 工業化나 輸出競爭力强化는 生產構造의 高度화와 生產性向上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低賃金依存이 지양되면서

勞動力의 質的向上을 비롯한 生產性向上에 重點을 둘 政策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③ 生產性이 向上됨에 따라 實質賃金과 生產性向上사이의 격차를 점차적으로 해소하여 勞動力의維持保護，勞使協調의 基盤造成，國內市場의擴大 등에 기여케 함으로서 生產性向上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工業이 당면한 과제는 바로 食品工業分野가 당면하게 될 課題이기도 하다. 따라서 앞으로의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勞動力を 量的質的으로 확보하면서 企業體系의 強化와 技術革新으로 低賃金依存의企業經營에서 점차적으로 벗어나 長期的方向에서 勞動問題를 합리적으로 처리도록 해야될 것이다.

60年代 政府主導의 經濟開發이 70年代에는 民間主導의 經濟開發로 전환해야 하듯이 勞動問題解決도 強力하고 硬直의인 政府規制에 의해 보다도 協調的이고 伸縮의인 自律規制에 의해 처리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하루 한끼 분식하고 3割이상 혼식하자